

LG화학, 작심삼일 프로젝트 독려

LG화학이 직원들의 결심 이행을 지원하는 연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LG화학은 <작심 Forever 프로젝트>라는 결심이행 돕기 프로그램의 첫 주제로 금연을 선정해 초기에 37명의 참여를 이끈 데 이어 최근 나주공장 등을 중심으로 참여 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참여자의 결심이행을 돕기 위해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몸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연 실천상황을 챙기고 있고, 3개월 동안 결심이행에 성공하면 상품권과 상장 등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앞으로도 3개월 단위로 새로운 결심 테마를 내세워 직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 아래 1-3월 금연에 이어 4-6월에는 핸드폰 요금 다이어트를 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7월 이후에는 자동차 주행거리 다이어트, 걷기 등 다양한 생활형 주제를 앞세워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연초에 새로운 결심을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례가 많으나 프로젝트 참여로 결심이행에 성공하면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생겨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2/14>